

인터뷰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전력·AI, 산업 판 바꾼다...“광주, 미래차 중심 전환 시급”



급속한 글로벌 환경 변화, 산업 혁신 전략 제시 에너지 따라 산업 이동...호남권 새로운 전환점 자동차 의존 한계점...AI·자율주행 다각화 필요

“광주지역 산업은 지금 기후 변화, 기술 혁신, 글로벌 패권 경쟁,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중심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AI·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이 시급합니다.”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지난 20일 광주가 글로벌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AI,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구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후 변화,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기술 발전, 미중 패권 경쟁을 핵심 변화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네 가지 흐름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대응 여부에 따라 지역 경제의 존폐가 갈릴 수 있다”며 “과거 석탄 산업이 급격

히 쇠퇴한 것처럼, 산업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AI 확산으로 기업의 기획·마케팅 기능이 축소되는 등 노동 구조 변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문제는 생산보다 송전이다. 호남 지역은 전력 생산 역력이 충분하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산업 확장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생산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산업 유치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전력 문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역시 전력 확보가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광주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자동차 산업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광주 제조업의 약 절반이 자동차 산업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국내 생산 감소 가능성이 언급됐다.

김성진 원장은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함께 산업 다각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광주를 24시간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기업과 기술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소프트웨어·데이터 산업까지 확장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산업 변화도 주요 전략 요소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향후 치매를 비롯한 고령화 질환이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광주가 보유한 의료 데이터와 인프리를 활용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 공백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원장은 특히 광주·전남 통합을 산업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력과 산업 입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대규모 산업 유치 가능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너지, AI, 자율주행,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 결국 전력과 기술을 따라 이동한다”며 “광주가 이 흐름을 선점하면 기회가 되지만 놓치면 위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이 산업 구조 전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가격 내린다더니...수요 높은 상품은 쏙 빠져

물가 안정 동참 기업들 보여주지 가격 인하 비난 라면·과자·채소 등 주력 제품 제외...“실효성 의문”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일부 식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가격 인하’라는 지적이다.

가격 인하 품목 대부분 소비자 수요가 적거나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돼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동구조 점검팀 회의를 열고 롯데푸드와 오리온, 빙그레, 삼립 등 제과·양산 빵·빙과 업체 4곳이 19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최대 13.4%이며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는 총 9개 제품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다.

비스킷 카테고리에서는 ‘엄마손파이’ 2종이 가격 인하 품목에 포함됐고 캔디는 ‘청포도 캔디’와 ‘복숭아 캔디’ 등 3종을 내린다.

양산빵에서는 ‘기린 왕만주’와 ‘기린 한입꿀호떡’ 2종의 가격을 낮추고 빙과는 ‘찰떡유유빙수설’과 ‘와 소다맛 펜슬’ 2종을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리온은 ‘배배’, ‘바이오캔디’, ‘오리온웨하스’ 등 3개 제품을 평균 5.5% 인하하며 SPC삼립은 ‘포켓몬 고스 초코케익’의 4종의 가격을 낮

추기로 했다.

빙그레는 8개 제품에서 6~10% 내릴 예정이다. 인하 품목은 ‘링키바’, ‘구슬플라포 키위&파인애플’, ‘왕실키위샌드 피넛버터’, ‘밀키프룻’ 2종, ‘로 우유거대이’ 2종, ‘납’ 등이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하 품목에서 각 업체 대표 제품이 모두 빠지면서 ‘체면지레’에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롯데푸드에서는 배배, 월드콘, 스크류바 등이, 오리온에서는 초코파이, 포복집 등 주력 제품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빙그레는 메로나, 비비빅, 투게더 등 주력 제품을 인하 대상에 넣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제품 위주로 가격 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보여주기식 인하’, ‘반쪽짜리 인하’라는 지적은 앞서 라면 가격 조정 당시에도 불거졌다.

지난 12일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이 라면과 일부 과자 품목을 내리기로 했지만 주력 제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불닭볶음면, 진라면 등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대 A씨는 “가격을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제품들은 다 빠져 있다”며 “정부의 기조에 맞지않게 동참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업계는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원·부자재,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속 매출 비중이 높은 주력 제품의 가격을 내리면 실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인데다 중동 물류 쇼크 등으로 가격인하 자체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며 “국제 정세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승기 기자 yo1404@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크루젠 GT Pro’ 출시 4개 구매 고객 대상 기념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신제품 ‘크루젠 GT Pro’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신제품 ‘크루젠 GT Pro’를 4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헬리덱스 그래픽, 패스트캠프 원터치센터,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 폰티악 여행용 캐리어,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1종 선택)을 5월까지 증정한다.

또 6월까지 제품 구매 후기를 등록한 고객 중 200여 명을 선정해 순금코인 및 커피 기프트콘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타이프로 홈페이지(www.tirepro.co.kr) 및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 효율등급(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제품은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53개의 폭 넓은 사이즈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주요 성능인 소음, 내마모 성능을 만족시키는 EV 테크놀로지를 적용, 전기차가까이 아우르는 전 규격 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또 금호타이어는 3월 한 달간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호 만족보증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성능에 불만족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타이프로에서 행사 제품 4개 구매 시 적용된다. 고객 과실로 인한 타이어 손상 발생 시에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하는 ‘타이어보통트러스트플러스’ 보증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 김성 상무는 “신제품 ‘크루젠 GT Pro’는 동급 최고 수준의 마일리지와 에너지 효율, 정숙성을 구현한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라며 “많은 고객들이 크루젠 GT Pro의 우수한 성능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매출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정일택 대표이사 체제 하에 한 평 및 유럽공장 건설을 통한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AI로 하루 평균 57명 취업 노동부, AI 고용서비스 확대기로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작년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구인 공고는 일반 구인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17만 2000명, AI 추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2만1000명이었다.

하루 평균 약 57명의 구직자가 AI를 통해 취업한 셈이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자의 평균 월급은 253만원으로 미이용 취업자의 월급 248만7000원보다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늘었다. 2025년 말 기준 잡케어 이용 건수는 4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잡케어 이용자의 90% 이상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대상 AI 서비스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만에 1만3000개 기업이 활용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비사이트에서 열린 ‘국제 수소·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참가했다. 사진은 관람객들이 자동 충전 로봇을 활용한 디올 뉴 넥소 충전 시연을 바라보는 모습.

현대차그룹, ‘국제 수소·연료전지 엑스포’ 참가

벨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소 기술·역량 선보여

현대차그룹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비사이트에서 열린 ‘국제 수소·연료전지 엑스포 2026’에 참가해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제 수소·연료전지 엑스포는 수소 및 연료전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동향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대표 박람회로, 올해에는 33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했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 충전 및 저장,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수소 벨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과 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상반기 일본 시장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 모델 ‘디올 뉴 넥소’를 전시하고, 자동 충전 로봇을 활용한 충전 시연과 시승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큰 관심을 모았다.

시승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디올 뉴 넥소의 뛰어난 주행 성능과 우수한 승차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이 기간 동안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현대차그룹 부스를 방문해 주요 전시물을 둘러본 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일본 내 수소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소위원회 네트워킹 세션’에 참여해 일본 위원회 회원사 및 글로벌 수소 기관 관계자들과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세션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켄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이바나 제멜코바 수소위원회 CEO, 아미가타 미쓰마사 토요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